

‘꿀잼 도시’ 광주, 관광객 3000만 시대 연다

관광 대전환 원년 선포…체류형·글로벌 전략 가동
‘주말엔 광주’ 캠페인·여행 플랫폼 협력·팸투어 추진

‘노잼 도시’(재미없는 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사람들이 찾아와 머물고 싶은 ‘꿀잼 도시’(재미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광주시가 올해를 관광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방문객 수 늘리기 넘어, 지역에 머무르며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객’을 집중 유치해 국내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아심 찬 포부다.

광주시는 8일 ‘광주, 머무는 순간이 이야기가 된다’를 비전으로 하는 ‘2026 광주 관광 흥보마케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단발성·경유형 관광 패턴을 극복하고, 광주만의 숨은 매력을 발굴해 글로벌 관광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담고 있다.

◇ “스쳐 지나가지 마세요”… 목표는 ‘체류형 관광=광주시는 올해 관광 마케팅의 핵심 목표를 ‘체류형 관광 도시 도약’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시비 3억원을 투입, 광주관광공사에 사업을 위탁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흥보 마케팅을 전개한다.

올해 유치 목표는 국내 관광객 3000만 명, 외국인 관광객 15만 명이다.

코로나19 펜데믹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수치다.

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타겟팅(Targeting·단

순유입에서 체류로), 브랜딩(Branding·노잼에서 꿀잼으로), 글로벌(Global·국내에서 세계로) 등 3대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단순히 관광객 수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관광객의 체류 시간과 소비 지출을 늘리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수도권 2030 겨울 ‘주말엔 광주’… ‘스팟’을 찾아라 =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은 ‘핀셋 마케팅’으로 요약된다.

광주시는 구매력과 파급력이 높은 수도권 거주자와 2030 MZ세대를 핵심 타겟으로 설정했다.

‘주말엔 광주’ 캠페인 대표적이다. 시는 KTX 용산역, 수서역 등 수도권 주요 거점과 지하철 스크린도어, 옥외 전광판 등을 활용해 광주의 매력을 알리는 대안적인 오프라인 광고를 진행한다.

특히 SNS상에서 바이럴 될 수 있는 ‘광주스팟(Gwangju Spot)’ 발굴에 공을 들인다.

‘광주스팟’은 광주만의 독특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숨은 명소를 뜻하는 신조어로, 시는 유명 인플루언서와 유튜버를 활용해 이곳에서의 체험을 담은 스토리(영상) 콘텐츠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맛집(미식)과 예술(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광주가 강점을 가진 콘텐츠를 결합해 ‘광주는 재미를 아는 도시(Know-Jam)’라는 새로운 브랜딩도 시도한다.

◇ 개별 관광객(FIT) 잡고 세계로… 글로벌 마케팅 강화 = 해외 마케팅은 패키지여행에서 개별 자유여행(FIT)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전략을 수정했다.

광주시는 아고다, 트립어드바이저 등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과 협력해 항공권, 숙박, 체험 상품을 묶은 ‘광주 여행 패키지’를 선보이고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별 여행객이 여행 정보를 주로 얻는 플랫폼을 직접 공략해 실질적인 방향을 유도하겠다는 계산이다.

타깃 시장별 맞춤형 전략도 구사한다. 중화권, 일본, 동남아 등 방한 관광객 비중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현지 유력 미디어와 인플루언서를 초청하는 팸투어를 진행한다.

이들이 직접 광주의 맛과 멋을 체험하고 자국에 소개함으로써 잠재적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신뢰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 데이터 기반 성과 관리… ‘밀 빠진 득’ 막는다 = 광주시는 이번 마케팅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성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단순히 예산만 집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콘텐츠 노출 수, 평균 체류 일수, 관광 소비액, 외국인 방문객 수 등 구체적인 핵심 성과지표를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마케팅 재질과 콘텐츠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타깃별 맞춤형 전략과 차별화된 콘텐츠로 ‘머물고 싶은 도시 광주’를 만들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중기 ‘임산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세요

시, 10일부터 선착순…50인 미만 사업장에 1인당 100만원

광주시가 출산 전후 휴가에 따른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임산부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1인당 100만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8일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이 사업은 근로자의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 등 간접 노무비를 시가 대신 지원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임산부의 고용 안정을 돋는 제도다.

시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기존 10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기준을 변경해,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소규모 영세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출산 휴가 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곧바로 육아휴직으로 이어지는 ‘자동 육아휴직제’를 보장해야 하며, 임산부에게 정기 건강검진을 위한 ‘태아 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

모집 규모는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45건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은 추후 근로자의 휴가 복귀 시점까지 고용을 유지했다는 증빙 서류(출산·육아휴직 통합신청서, 태아검진 유급 확인서 등)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산구 의장 출신 6명, 지방선거 대거 출사표

체급 올리기·수성 관전 포인트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 광산구의회 전·현직 의장단이 대거 출사표를 던졌다.

7대부터 9대에 이르는 의장 출신 인사 6명이 동시에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이들의 ‘체급 올리기’와 ‘수성’ 여부가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8일 광산구의회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를 공식화한 전·현직 의장은 총 6명에 달한다. 7대 전·후반기 의장을 지낸 이영순·조승우 구의원을 비롯해 8대 배홍석·이영훈 의원, 9대 김태완·김명수 구의원 등이다.

이들의 행선지는 엇갈린다. 4명은 체급을 올려 광주시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으며, 2명은 다시 한번 구의원 배지를 노리고 있다. 공통점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공천장을 목표로 배수로 진을 쳤다는 점이다.

기초의회 의장을 지낸 인사들이 지방선거에 다시 나서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한 차지구에서 전·현직 의장 6명이 동시에 출마한 점은 드물게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우치동물원, 광주·전남 동물원 협력체계 본격 가동

시, 12개 기관 초청 설명회 가져

시·도 공공서비스 협력 모델 제시

지난해 국가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된 광주 우치동물원이 광주·전남 권역 내 동물원들의 진료 협력 체계 강화에 나섰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우치동물원에서 광주·전남 지역 12개 민간·공영 동물원 및 동물 관리 기관 관계자 30여 명을 초청해 ‘거점동물원 운영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치동물원이 보유한 전문 진료 시스템과 노하우를 공유해 권역 내 동물원 간의 유기적인 협력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광주·전남 행정 통합의 의의를 험한 가운데, 동물 복지와 의료 지원 등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시·도가 실질적으로 협력하는 현장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참석자들은 이날 야생동물 전문 진료 체계 구축, 멸종위기종 구조 및 보호, 보전 연구, 동물 복지 컨설팅 등 국가 거점동물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핵심 과제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동물권의 주요 현안인 ‘사육금’ 문제 해결을



광주 우치동물원에서 지난 6일 열린 ‘거점동물원 운영 설명회’에서 광주·전남 지역 12개 동물원 및 동물 관리 기관 관계자들이 우치동물원의 전문 진료 체계와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광주시 제공)

위한 청사진도 제시됐다. 현재 사육금 4마리를 보호 관리하고 있는 우치동물원은 올해 2마리를 추가로 입식할 예정이다. 진료팀은 최근 베트남 곰 보호 센터를 벤치마킹한 결과를 공유하며, 향후 사파리 방식을 적용한 생태적 곰 보호 시설 확충 방안을 설명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현장 견학도 이어졌다. 관계자들은 수술실과 영상진단실을 비롯해 이동식 엑스레이(X-ray), 초

음파, 내시경 등 전문 의료 장비를 갖춘 동물병원 시설을 둘러보고 실제 환진 과정에 참관하며 우치동물원의 의료 지원 역량을 확인했다.

우치동물원은 지난해 6월 국가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된 이후 광주·전남·전북·제주 등 호남권 25개 동물원을 대상으로 질병 관리와 긴급 치료, 재활 등을 지원하는 중장기인 역할을 맡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전남 7개 시·군 참여 설 맞이 직거래장터

오늘 시청 1층 시민홀서

광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남 7개 시·군과 손잡고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장터를 열어, 행정통합의 핵심 가치인 ‘상생’을 실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시·도민이 채감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만들고,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판로 확보를 돋기 위해 기획됐다. 장터에는 광주시를 비롯해 나주·순천·광양·장성·담양·화성·고흥 등

전남 7개 시·군이 참여하며, 총 32종의 명품 농특산물을 선보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5계>

※ QR코드 :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합니다.



사건번호 물건 번호 매각 물건 소재 지 및 면적 [m²] 용도 최종 매각가액 [단위: 원] 비고

[아파트]

2025년 경 51297 1 무안군 삼향읍 낙우2길 247번지 102동 2층 2호 [한국원] 84.92㎡ [약 1,187.49 원/평원비율]

2025년 경 51346 1 목포시 산정동 1270-20 181.9㎡ [지상소재타인 소유지세외인건물] [단층주택및소매점] 매각제외

2025년 경 51346 2 영암군 시종면 내동리 188 356㎡ 제시와 참고 4대 8,000원 현황일부일시적인전으로이용증]

2025년 경 51346 3 영암군 시종면 내동리 258-1 1101㎡ 전 8,000원 현황일부일시적인전으로이용증]

2025년 경 51346 4 영암군 시종면 내동리 1213-9 1477.2㎡ 답 8,000원 현황일부일시적인전으로이용증]

2025년 경 51346 5 동소 1213-10 1420.6㎡ 답 8,000원 현황일부일시적인전으로이용증]

2025년 경 51346 6 영암군 시종면 내동리 2196-11 1499.3㎡ 답 8,000원 현황일부일시적인전으로이용증]

2025년 경 51346 7 영암군 시종면 내동리 2196-11 2115.7㎡ 답 8,000원 현황일부일시적인전으로이용증]

2025년 경 51346 8 신안군 비금면 수지리 944-5 2450㎡ 답 8,000원 현황일부일시적인전으로이용증]

2025년 경 51346 9 신안군 비금면 수지리 717 698㎡ 답 8,000원 현황일부일시적인전으로이용증]

2025년 경 51346 10 동소 716 403㎡ 답 8,000원 현황일부일시적인전으로이용증]

2025년 경 51346 11 동소 715 1309㎡ 전 8,000원 현황일부일시적인전으로이용증]

2025년 경 51346 12 동소 714 172㎡ [물건번호2:2] [농지취득자증명증명] 전 8,000원 현황일부일시적인전으로이용증]

2025년 경 51346 13 동소 714 172㎡ [물건번호2:2] [농지취득자증명증명] 전 8,000원 현황일부일시적인전으로이용증]